

# 대학주보



3》 졸업식 추억, 이렇게 남겨보자!



4~11》 학부·대학원 졸업자 명단



졸업 후 중앙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 방법 : 서울중앙도서관 이용자지원센터 또는 국제중앙도서관 자료열람실에서 졸업생 대출신청서 작성 후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
- 열람실 이용 : 재학생과 동등(사학기간에 일부 제한)
- 도서 대출 : 3권 14일간 대출 가능 (1회 연장 가능)
- E-Book 대출 : 경희전자책도서관(ebook.khu.ac.kr)에서 5권 5일간 대출 가능



##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12일 서울캠퍼스(서울캠) 평화의 전당과 국제캠퍼스(국제캠) 르네상스홀, 피스홀 등 단과대학·학부별로 다른 장소에서 열린다.

올해로 63회를 맞는 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일반대학원 박사 189명과 석사 635명, 특수대학원 박사 32명, 석사 692명이 학위를 받는다.

학사의 경우 서울캠퍼스(서울캠) 1,915명, 국제캠퍼스(국제캠) 1,861명 등 총 3,776명이 졸업한다.

각 단과대학별로는 문과대학 132명, 법과대학 94명, 정경대학 329명, 경영대학 311명, 호텔관광대학

164명, 이과대학 213명, 생활과학대학 100명, 의과대학 2명, 한의과대학 113명, 약학대학 92명, 간호과학대학 181명, 음악대학 86명, 미술대학 54명, 무용학부 39명, 자율전공학과 5명, 공과대학 479명, 전자정보대학 227명, 응용과학대학 84명, 생명과학대학 164명, 국제·경영대학 7명, 국제대학 74명, 외국어대학 221명, 예술디자인대학

학 337명, 체육대학 241명, 동서의학과 24명, 토목·건축대학 3명 등이 오늘 학사모를 쓴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서울캠 13명과 국제캠 9명에게 총장상을 수여된다. 이외에도 서울캠 13명과 국제캠 9명이 학장상을 수상하며, 우등상은 서울캠 42명과 국제캠 44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서울캠 총장상을 수상한 이재경(언론정보학 2011) 군은 “이스탄불 프로젝트, 멘토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내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교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졸업하면서 큰 상까지 받아 무척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국제캠 총장상 수상자 이종오(태권도학 2011) 군은 “좋아하는 분야를 매 순간 즐겁고 겸손하게 임해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쉽지 않겠지만, ‘흔을 담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경희를 빛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수 강산애로 활동 중인 강영길 동문이 한의과대학 한의학과에서 명예학위를 수여받는다. 강산애 동문은 82학번으로 입학한 바 있다.

###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 시간 및 장소

대상	시간	장소	졸업가운 반납장소
문과대학	오전 11:00	평화의 전당	각 학과 사무실 (국문과: 문203, 철학과 문204, 영어학부 문209, 사회과 문211)
법과대학	오전 10:40	법학관 101호 *이후 평화의 전당으로 이동	법학관 214호 교강사 휴게실
정경대학	오전 10:30	평화의 전당	정경대학 302호 행정실
경영대학	오전 10:30	호텔관광대학 워커힐호텔 (IF) *학위수여식 후 평화의 전당으로 이동	호텔관광대학 컨벤션홀 (2층)
이과대학	오전 10:30	평화의 전당	각 학과 사무실 (수학과: 서관 503A, 물리학과: 서관 304, 화학과: 서관 104, 생물학과: 동관 306호, 지리학과: 동관 505,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루른홀)
생활과학대학	오전 10:30	평화의 전당	생활과학대학 209호 행정실
의과대학	2/25 2:00	크리운 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동일	의과대학 503호 행정실
한의과대학	오전 9:30	한의과대학 종 중경실 *이후 평화의 전당으로 이동	학장 세미나실
약학대학	오전 10:00	의학관 B209호 *학위수여식 후 평화의 전당으로 이동	약학대학 105호 행정실
간호과학대학	오전 10:00	주간학부 : 간호과학대학 507호 RN BSN : 간호과학대학 506호 *10:20에 평화의 전당으로 이동	간호과학대학 617호 *대여 시 616호 * 51,000원 준비 (동장화비 50,000원+운송비 1,000원)
음악대학	오전 11:00	음악대학관 리사이틀홀	음악대학 207호 행정실
미술대학	오전 10:30	평화의 전당	미술대학 행정실
무용학부	오전 10:30	평화의 전당	무용학부 행정실
자율전공학과	오전 10:00	자율전공학과 행정실 (청운관 607호) *이후 평화의 전당으로 이동	자율전공학과 행정실 (청운관 607호)

### 국제캠퍼스 학위수여식 시간 및 장소

대상	시간	장소	졸업가운 반납장소
외국어대학		르네상스홀	외국어대학 203호
생명과학대학		파스홀	생명과학대학 각 학과 사무실
국제대학	오전 10:30	국제·경영대학 시청각실	국제대학 305호
국제·경영대학		예술·디자인대학 대공연장	각 학과 사무실
예술·디자인대학		르네상스홀	· 전자전파공학과: 전자정보대학/응용과학대학 101호 · 컴퓨터공학: 전자정보대학/응용과학대학 102호 · 생체의공학: 전자정보대학/응용과학대학 103호
전자정보대학		예술·디자인대학 대공연장	· 기계공학: 공대 142-2층 · 산업경영공학: 원리적공학, 환경학및환경공학: 공대 142-2층 · 사회기반시스템공학: 건축공학, 건축학과: 공대 146호 · 화학공학: 고분자설계유도소재학정밀자산소재공학: 공대 148호
공과대학	오후 2:00	파스홀	전자정보대학/응용과학대학 227호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 206호	
체육대학		체육대학 시청각실	국제·경영대학 104호
동서의과대학	오후 3:00		

## 수상자 명단

### (총장상)

권대명 박경태 박노환 박민정 박새롬 박진희 송민선 송하온 양석종 유정아 이상훈 이우성 이재경 이종오 이한별 조윤진 차지훈 천지훈 최예원 한가인 한재민 흥승희

### (학장상)

강민수 강유라 강종성 강한별 권수미 기은아 김경록 김광종 김

김규호 김소연 김아라 김제희 민종원 박병진 박사라 부지연 오현정 이다영 이성호 이아름 이정원 이지원 이현주 전용민 정다운 정슬자 정유진 조용식 최수민 허수경

### (우등상)

강민수 강유라 강종성 강한별 권수미 기은아 김경록 김광종 김

다솔 김문수 김미강 김민주 김상훈 김세현 김수지 김아리 김영은 김예은 김유진 김윤희 김주성 김주원 김준성 김지은 김지이 김지희 김철호 김태수 김현덕 김희아 노정훈 류혜진 문효성 박동영 박자원 박주경 박주영 박현석 방유성 방태성 배상우 백길호 백다솜 변성무 변수영 소정호 신경호 신

은경 신준희 양성호 우혜린 원소희 유승민 윤정호 윤지혜 이동하 이민희 이예정 이용석 이윤주 이은주 이재은 이태린 이한결 이한별 이혜별 임예림 임은철 장용수 전유진 정다운 정별꽃사랑 정세민 정아영 정현식 조규정 조수지 조여원 주재영 진지현 천마로 천준영 최유정 최윤정 주지혜 한은비

## 알림

### 졸업 후에도 학교 소식을 받아보세요!

대학주보 구독 신청 02-961-0093~4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신청 khad3070@khu.ac.kr

미디어센터 mediakhu.ac.kr

인터넷 대학주보 media.khu.ac.kr/khunews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khunews

“내 인프라는 나 자신이었다”

발을 맞이하는 모든 졸업생 여러분을 축하한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이할 내일을 힘껏 축복한다.

〈미생〉의 끝자락에서, 계약직 기간을 만료하고 원 인터내셔널을 떠나던 주인공 장그레는 회사건물을 바라보며 이렇게 읊조렸다. 내 것이라 생각했던 공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었을 때 맞이하게 되는 처연한 감정을 짤막하면서도 생생하게 묘사한 이 문장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오늘, 제63회 전기학위수여식을 맞은 졸업생 여러분에게, 우리학교 캠퍼스와 대학건물들이 그리 차갑기만 한 모습으로 서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캠퍼스 곳곳에 여러분이 누렸던 대학시절 그 청춘의 시간들이 깊이 배어들어 있는 텃도 있을 테지만, 경희의 이름이란 것이 졸업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언제까지도 여러분과 함께할 이름이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이제 새내기 동문이 되어 캠퍼스 밖으로 향하는 여러분과 그런 여러분을 너른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우리학교는 서로가 서로를 가슴 깊이 간직하는 애恸한 사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경희대학교’는 ‘철 들 무렵 내가 속해있던 세계’이자 ‘20대를 상징하는 시공간’으로 남아 아련한 추억이 깃든 즐거운 이름이 될 것이다. 세상의 풍파에 지칠 때 조용히 찾아와 심신을 다독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원활 때면 언제나 동문의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

또한 경희에게 5,324명의 졸업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은 21세기 초엽에 경희가 지향했던 가치와 철학, 교육관 등을 상징하는 존재들로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이 곧 경희의 발걸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일궈내는 삶이 곧 경희의 향기가 배어든 삶이 될 것이다.

다시금, 졸업을 축하한다. 여러분이 각자의 생을 신중하게 내딛어야 하는 그 치열한 여로(旅路) 곁에서, 우리신문 역시 모교의 이야기를 하루하루 친절하게 써내려가며 힘차게 전진해가겠다.